

英才教育研究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2001. Vol. 11. No. 2, pp. 23~37

## 중학교 과학영재의 완벽주의 성향과 스트레스와의 관계

송 경 애 (건국대학교)  
klovesong@hanmir.com  
이 지 현 (건국대학교)  
jhlk@konkuk.ac.kr

### 요 약

본 연구는 과학영재 중학생과 일반 중학생의 완벽주의 성향과 스트레스 요인별 강도를 비교하고 완벽주의 유형과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질문지 조사를 통해 143명의 과학영재 중학생과 148명의 일반 중학생의 완벽주의 성향과 스트레스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인 완벽주의 성향은 과학영재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영재집단의 자기지향적 완벽주의가 높았으며, 스트레스는 일반학생들이 영재집단에 비해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집단의 경우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에 있어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 I. 서론

청소년기는 심신의 변화가 큰 시기이다. 성취해야 할 과제도 많으며, 이 시기의 발달적 특성으로 인하여 심신의 장애가 일어나기 쉽다. 또한 이 시기의 학생들은 자아정체감이 형성되고 정신적 이유기에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게 된다. 심리적·신체적 격동기를 맞고 있는 청소년들은 각종 시험과 상급학교 입시에 대한 불안, 심리적인 갈등과 적응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스트레스는 개인 내적, 대인관계적, 환경적 체계의 상호작용과정에서 유발되므로(Lemper & Clark-Lemper, 1990), 인간은 모든 생활국면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사건에 노출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자신이 맡은 분야나 하는 일에서 완벽함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의 경향을 완벽주의 성향이라고 한다. 사회가 성취 지향적이고 경쟁이 심할수록 사람들의 완벽주의의 특성이 강화될 소지가 크다. 완벽주의는 자긍심의 유지와 긍정적인 성취동기를 제공하며 생산성을 고양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완벽하다’는 것이 실제로는 불가능하므로 이처럼 불가능한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쉽다.

영재들은 높은 수준의 성취를 스스로에게 기대하며, 이러한 기대는 자신의 우수한 성취에 대한 타인의 칭찬에 의해 정적으로 강화된다. 따라서 영재들은 대체로 완벽을 추구하는 성향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영재들, 특히 신체적·심리적인 격동기라 할 수 있는 청소년기 영재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완벽주의 성향과 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었다. 본 연구는 중학생 과학영재와 일반 학생들의 완벽주의 성향과 스트레스의 양상, 완벽주의 성향과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완벽주의 성향은 차이가 있는가? (2)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스트레스 요인별 강도는 어떠한가? (3)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완벽주의 성향과 스트레스와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완벽주의는 정상적인 완벽주의와 신경증적 완벽주의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정상적인 완벽주의자들은 힘들게 노력하면서 진정한 기쁨을 느끼고,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강하다. 또한 자신의 완벽주의 성향을 긍정적으로 느끼고 지속적으로 일을 해 나가면서 자신의 능력이 더욱 더 향상되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반면에 신경증적 완벽주의자는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기준을 세우며 실수를 허용하지 못한다.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불안하고 혼란스러워하며 주저하고 스스로를 향상시키려는 욕구를 갖기 어렵다.

Hewitt과 Flett(1991)는 완벽주의 성향을 자기 지향 완벽주의(self-oriented perfectionism)와 타인지향 완벽주의(other-oriented perfectionism),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로 구분한다.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자기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강요하는 행동을 한다. 실패를 피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완벽을 기하려는 동기를 지닌다. 자신의 행동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낮은 자존감을 갖기 쉽고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부적응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부여하는 성향은 생활과 학습에 있어서 내적인 동기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한 남에게 지지 않으려는 경쟁심, 우월한 입장에 서려고 하는 욕구, 자아의 우위를 보장하려는 욕구는 개인의 발전을 도모하는 심리적인 기저로 작용할 수 있다.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의미있는 타인에게 비현실적인 기준을 부과하고 그 기준에 완벽하게 도달하도록 기대하고 타인의 행동을 엄격히 평가한다. 그리하여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타인에 대해 적대감과 불신, 비난을 나타냄으로써 대인관계에서 좌절을 겪는다. 이는 특히 가족간의 문제나 친구간의 문제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의미있는 타인이 부과하는 기대와 기준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로서, 의미있는 타인이 자신에게 비현실적인 기준을 갖고 엄격하게 평가하고 완벽을 기하도록 압력을 주고 있다고 지각하거나 믿는다. 이렇게 부과된 기준이 과중하고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는 의미있는 타인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지각하기 때문에 분노, 불안, 우울과 같은 정서를 느끼는데, 그 저변에는 부과된 기준에 미치지 못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까 하는 두려움과 타인으로부터 인정, 관심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깔려 있다.

이와 같이 완벽주의는 개인의 삶에 적응과 성취의 동기로 작용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으나 아울러 자신이나 타인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자기 비판에 빠져 불안감과 좌절을 느끼게 만드는 부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스트레스는 크게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와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 그리고 역동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자극으로서의 스

트레스는 환경 내 자극 특징을 스트레스로 보는 개념이다. 최해림(1986)은 스트레스를 질병이나 천재지변, 일상적인 고민거리 등과 같은 것으로 보았으며, 보통 일상적인 대화에서 사용되는 ‘스트레스’라는 말은 이를 의미한다. 그러나 객관적인 스트레스의 지표로 볼 때, 이 관점에는 양적으로 표현 될 수 없는 비특유 자극이나 자극의 결핍 및 특정집단에서 경험하는 생활사건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란 개인의 스트레스 반응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Selye(1974)는 신체에 가해진 어느 요구에 대해서 신체가 수행하는 일반적이고도 비 특정한 반응을 스트레스라고 하였다. 적응을 요구하는 모든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적응 과정은 경계 반응기, 저항기, 소진기의 3단계를 갖는데 적응 자원이 모두 소진되면 심리적 또는 신체 생리적 결과로 스트레스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 입장의 한계는 스트레스를 생체의 기능 변화라고 보지만, 각각의 반응이 일정하지 않고 복잡하다는 점이다. 또 항상성 유지는 늘 도전을 받고 있으므로 아주 심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의 반응과 스트레스 반응을 구분하기 어려우며, 똑같은 스트레스 반응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요인에 의해 유발될 수도 있어 그 요인을 구별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Spence(1999)는 심리과정에 초점을 두어 스트레스를 개인과 환경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보았다. 자극의 스트레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자극 혹은 반응 그 자체가 아니고 개인의 지각, 인지 및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 등이 자극과 상호작용하는 결과라고 본다. 즉, 유전적 요인, 부모의 모델링, 과거의 경험들, 개인적인 태도에 의해서 똑같은 사건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전혀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입장에서는 실제로 일어나는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이 생활사건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 사이에 일어나는 역동적이고 상호작용적인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개인이 그 사건을 평가하고 동시에 자신의 자원을 평가하여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될 때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Lazarus와 Folkman(1984)은 스트레스란 개인과 환경간의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개인의 자원을 요구하거나, 개인이 소유한 자원의 양을 넘어서 자신의 안녕이 위협하다고 평가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아동기 및 청소년기의 생활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는 성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유사한 점도 많지만, 특히 심리적, 신체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느 시점에 있는가? 나의 갈 곳은 어디인가?’ 등의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과중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심영훈, 1999; 최해림, 1986). 이러한 스트레스는 감정적·행동적 측면 뿐 아니라 신체적 측면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청소년이 느끼는 스트레스를 분석하여 이들이 안정

된 심리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청소년의 완벽주의 성향과 스트레스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영재를 대상으로 완벽주의 성향과 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찾기 어렵다. 영재를 대상으로 한 관련 연구로서는 과학 고등학교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연구한 육근철(1992)의 연구와, 특수목적고 영재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대한 적응과 스트레스를 살펴본 윤재은(1994)의 연구가 있다. 육근철(1992)은 과학 고등학교의 영재 학생들은 학교, 학과, 경쟁 의식에 의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반면, 자신의 의지와는 별로 관계없는 가정이나 경제, 종교 문제 등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윤재은(1994)은 특수 목적고 영재 학생들이 일반 고등학생들보다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있으며 스트레스도 적게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완벽주의적 성향과 스트레스에 관련된 선행 연구 중에서, 홍혜영의 연구(1995)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 우울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우울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즉,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개인 행동에 부적응적인 영향을 주며, 이러한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우울도 커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완벽주의 성향 중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부적응과 관련이 적은 건강한 측면이라는 결과도 함께 나타났다. 이것은 단순히 완벽주의 성향이 높다고 반드시 부적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 과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어떠한가에 따라 적응적일 수도 있고 부적응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Brown(1993), Lynn, bieling과 Wallace(1994)도 개인이 갖는 성격적 특성과 인지적 특성, 자기효능감과 역동성에 따라 우울의 수준이 달라진다고 보고한 바 있다. 현진원(1992)은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불안의 수준도 높다고 했으며, 최정임(1998)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완벽주의 성향과 시험불안, 학업성취도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수연(2000)은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장점수용이 높은 집단에서 나타나는 반면,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단점수용과 부적인 상관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렇게 볼 때 개인의 완벽주의 성향과 스트레스간에는 모종의 관계가 있으며, 특히 스트레스의 요인에 따라 완벽주의 성향이 다른 양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학분야에 대한 이해력과 과제 분석력, 및 분석적 적용력 같은 인지적 능력과 더불어 학문적 자아개념, 자발적 자기주도성, 과제 집착력 등의 정의적 측면의 장점이 뛰어난 과학영재들은 완벽주의적 성향과 스트레스를 어떤 양상으로 나타내는지, 그리고 이러한 양상이 일반 학생들과 어떤 차이를 드러내는지 비교해 봄으로써 과학영재들의 특성을 좀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중학생 과학영재 143명과 일반 중학생 148명이다. 과학영재 집단은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울산광역시의 중학생으로서, 각 지역에서 다단계의 평가를 통해 과학영재로 선발되어 과학영재센터에서 교육받고 있었다. 충남과 대전지역의 중학생 과학영재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과학영재교육센터에서 주말교육, 여름·겨울방학중 과학영재교육캠프, 원격 영재교육을 받았으며, 경남과 울산지역의 중학생 과학영재는 경남대학교 과학영재교육센터에서 주말교육, 여름·겨울방학중 과학영재교육을 받았다. 비교집단으로 선정된 일반 중학생들은 서울시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보통정도인 K 중학교 학생들로서, 이들 중에서 과학영재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학년 석차 상위 5% 이내에 있거나 과학 학업성취가 뛰어난 학생들은 제외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 학년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성별, 학년별 분포

구분	학년	과학영재	일반학생	계
남	1,2	56	59	115
	3	41	39	80
여	1,2	19	20	39
	3	27	30	57
계		143	148	291

#### 2. 측정도구

##### 가. 완벽주의 성향 측정도구

완벽주의 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캐나다의 Hewitt와 Flett(1991)가 개발한 다차원적 완벽주의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를 사용하였다. 다차원적인 완벽주의 척도는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7점으로 하는 7점 평정

척도로 되어 있으며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원래 일반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나 문항 내용이나 문항의 이해 수준이 중학생이 사용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었으므로, 한기연(1993)이 번역한 것을 5점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이렇게 변환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의 문항내적합치도계수(Cronbach  $\alpha$ )는 .84였다.

#### 나. 스트레스 측정도구

과학영재집단과 일반학생들의 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정순(1988)의 척도를 수정한 ‘청소년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을 학교생활, 가정생활, 대인관계(친구관계), 자아영역 등 4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별로 11문항씩 총 4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평정척도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청소년 스트레스 척도에 대한 Cronbach  $\alpha$  계수는 .93으로 나타났다.

### 3. 연구의 절차 및 자료 분석

과학영재 집단은 2000년 8월 초 여름방학중 실시된 과학영재 캠프에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와 ‘청소년 스트레스 척도’ 질문지를 배부하여 검사를 실시한 후 수거한 한편, 일반 학생들은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비교적 스트레스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름방학 전인 2000년 7월 중순에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시간은 완벽주의 측정도구와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검사를 포함하여 약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들은 SPSS for window 10.0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대상학생들의 완벽주의 성향과 스트레스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완벽주의 성향과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이 성별, 학년별 특성에 따라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완벽주의 성향과 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다. 집단 간의 차이는  $p < .05$  수준에서 유의도를 검증하였으며, 변인간의 상관관계는 변인들의 수가 많았으므로 전반적인 오류 수준을 낮추어야 할 필요성에 따라 다소 보수적인  $p < .01$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 IV. 결과 및 해석

### 1.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완벽주의 성향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완벽주의 성향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이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적인 완벽주의 성향은 과학영재집단(M=129.4)이 일반집단(M=123.0)보다 높았으며 이와 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3.23, p<.001$ ). 완벽주의 성향을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자기지향 완벽주의에서 과학영재학생(M=72.7)은 일반학생들(M=65.2)보다 유의하게( $t=5.35, p<.001$ )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타인지향 완벽주의에서는 두 집단이 거의 비슷한 점수로서 차이가 없음을 나타냈으며,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과학영재 집단이(M=16.8) 비교 집단(M=17.7)보다 유의하게( $t=2.02, p<.05$ ) 낮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 과학영재들의 일반적인 강한 자신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엄격함, 자기 통제, 개인주의적인 성향, 강한 책임감이 자기지향 완벽주의로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2>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완벽주의 성향에 대한 차이

영역	구분	N	M	SD	t
완벽주의 성향	과학영재	143	129.4	18.0	3.23***
	일반학생	148	123.0	15.6	
자기지향 완벽주의	과학영재	143	72.7	12.2	5.35***
	일반학생	148	65.2	11.7	
타인지향 완벽주의	과학영재	143	40.0	6.8	.22
	일반학생	148	40.2	6.4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과학영재	143	16.8	4.3	2.02*
	일반학생	148	17.7	3.4	

\* $p<.05$ , \*\*\* $p<.001$

### 2.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스트레스

과학영재와 일반 학생의 스트레스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과학영



재학생의 스트레스는 평균 116.7, 일반학생의 스트레스는 평균 136.3으로 일반학생이 과학영재학생보다 스트레스가 더 높았으며, 이 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이었다( $t=5.69, p<.001$ ). 스트레스의 하위영역별로 보면, 학교생활 영역에서의 평균은 32.8 대 37 ( $t= 4.25, p<.001$ ), 가정 영역에서의 평균은 28.4 대 35.6 ( $t=6.31, p<.001$ ), 대인관계 영역에서의 평균은 28 대 32.1 ( $t=3.77, p<.001$ ), 자아 영역에서의 평균은 27.6 대 31.6 ( $t=3.77, p<.001$ )으로 과학영재 집단이 모든 하위 영역에서 비교 집단보다 더 낮은 평균을 나타냈다.

<표 3>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스트레스

영역	성별	N	M	SD	t
스트레스	과학영재	143	116.7	29.7	5.69***
총량	일반	148	136.3	29.0	
학교	과학영재	143	32.8	8.9	4.25***
생활	일반	148	37.0	7.8	
가정	과학영재	143	28.4	9.9	6.31***
생활	일반	148	35.6	9.6	
대인	과학영재	143	28.0	9.2	3.77***
관계	일반	148	32.1	9.5	
자아	과학영재	143	27.6	8.9	3.77***
	일반	148	31.6	9.5	

\*\*\* $p<.001$

이러한 결과는 과학영재 학생이 일반 학생들보다 주위의 환경에 잘 적응하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으며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해석될 수 있다. 즉, 성취가 뛰어난 과학영재들의 경우 대인관계에 자신감이 있고 가정과 학교에서 가족 구성원, 교사 교우들의 인정을 받으며, 이같은 인정과 지지는 과학영재들이 일반 학생에 비해서 스트레스를 덜 느끼게 되는 완충기제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3. 과학영재와 일반 학생의 완벽주의 성향과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

과학영재의 완벽주의 성향과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는 <표 4>와 같다. 전반적으로 볼 때, 과학영재의 완벽주의 성향과 스트레스의 총량 사이에서는 의미있는 상

관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r=.204, p>.01$ ),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만이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r=.219, p<.01$ ).

일반 중학생의 완벽주의 성향과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일반 학생의 완벽주의 성향과 스트레스 총량사이에는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r=.202, p>.01$ ). 전반적인 완벽주의 성향은 스트레스의 하위 요인 중 대인관계( $r=.231, p<.01$ ) 및 자아( $r=.290, p\leq.01$ )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완벽주의 성향 중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스트레스 하위 요인 중 자아영역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260, p<.01$ ).

<표 4> 과학영재의 완벽주의 성향과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

구분	완벽주의 성향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스트레스총량	.204	.149	.151	.191
학교생활	.127	.059	.090	.219**
가정생활	.134	.038	.181	.167
대인관계	.182	.172	.127	.074
자아	.212	.210	.084	.156

N=143, \*\* $p<.01$

<표 5> 일반학생의 완벽주의 성향과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

구분	완벽주의 성향	개인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스트레스 총량	.202	.121	.194	.148
학교생활	.012	.062	.052	.062
가정생활	.102	.017	.147	.131
대인관계	.231**	.199	.142	.112
자아	.290**	.199	.260**	.160

N=148, \*\* $p<.01$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과학영재 중학생들은 일반 중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높은 완벽주의 성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최정임(1998)의 연구에서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학생일수록 높은 학업성취를 갖는다는 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의 대상인 과학영재들은 학업성적이 최 상위권이었으므로 일반 학생집단과의 비교에서 그 차이는 더욱 의미있는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완벽주의 성향의 하위요인에 있어서 과학영재들의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일반 학생들보다 뚜렷하게 높았는데, 이는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홍혜영, 1995; Fleet & Hewitt, 1991)들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Fleet과 Hewitt(1991)는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부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성취하려는 끊임없는 동기화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높은 사람은 목표와 관련된 과제를 미루지 않고 수행하여 자신의 현재 상태를 목표에 가깝게 변화시켜 현 상태간의 불일치를 빠르게 축소시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같은 결과는 일반적으로 영재아들이 자신감이 강하고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며, 스스로 통제가 잘되고 개인주의적이며 책임의식이 강한 특성이 자기지향 완벽주의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과학 영재집단보다는 일반 학생 집단에게서 유의하게 높았다. 최정임(1998)의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인 영역이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로 나타났는데 의미있는 타인의 기대를 의식하고 기대에 부응하려는 노력이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과학영재들은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강하고 일반학생들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차이는 연구대상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서 일반학생들은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동안의 연구들은 주로 완벽주의를 우울, 불안 등 인간에게 부적응적인 사고와 행동, 정서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강조했으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완벽주의가 성취를 향한 동기, 힘과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강조할 수 있다.

과학영재 집단과 일반 학생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스트레스 총량과 스트레스 하위요인들 모든 영역에서 과학영재보다 일반 학생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업성취 면에서 우수함을 보이는 과학영재들이 중학교 시기에는

일반 학생들과 함께 학교생활이 이루어지므로 가정과 학교에서 부모, 교사나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는 만큼 스트레스가 적은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영재학생들은 일반학생들 보다 심리적으로 잘 적응한다는 지적(김정휘, 1996) 및 영재학생들이 긍정적인 심리학적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적응을 잘하고, 불안 수준도 낮다는 연구결과(Davis & Connell, 1985)와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과학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육근철, 1992)에서는 학교, 학과, 경쟁의식 등에 대해서 과학고 학생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과학영재들이 중학교 시절까지 가정과 학교에서 우수하다고 인정을 받다가 과학고등학교에 진학하면 과학고등학교라는 특수집단 속에서 느끼는 상대적인 열등감에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하고 추측된다.

일반학생들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 있는 차이는 아니었지만 학교와 가정영역의 스트레스가 대인관계와 자아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전성자(1999)의 연구에서 학교생활에서 시험부담과 성적, 가정에서 부모님의 간섭과 잔소리로 인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는 결과와 관련된다고 생각된다. 이 같은 결과는 학교와 가정에서 일반학생들을 보다 이해하고 그들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시켜주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의 흥미와 필요를 존중하며 이들의 잠재력이 최대한도로 개발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활동이 요구된다.

과학영재집단의 완벽주의 성향과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성향과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와의 상관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가 과학영재들에게 완벽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과학영재집단이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학교로부터 완벽성을 요구받는 것이 이들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일반학생들은 전반적인 완벽주의 성향과 대인관계 및 자아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완벽주의 성향 중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스트레스 하위 요인 중 자아영역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학생들의 경우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와 자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며, 특히 타인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성향이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김정휘(편)(1996). 영재학생의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필요·충분조건들: 가정, 영재 자신, 학교의 역할. 서울: 원미사.
- 심영훈(1999). 중학생의 스트레스 원인과 그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육근철(1992). 과학고등학교학생의 스트레스(Stress)에 관한 연구. 과학영재연구, 1(1), 93-109.
- 윤재은(1994). 영재집단의 학교생활 적응과 스트레스 및 그 대처방법: 특수목적고교와 인문고교의 비교.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연(2000). 자기수용과 자기존중감 및 완벽주의 성향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순(1988).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요인과 그에 따른 대응 행동에 관한 고찰.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성자(1999). 중학생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응행동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임(1998). 완벽주의 성향, 시험 불안, 학업 성취도의 관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해림(1986). 한국 대학생의 스트레스 현황과 인지-행동적 상담의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기연(1993). 다차원적 완벽성-개념, 측정 및 부적응과의 관련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현진원(1992). 완벽주의 성향과 평가수준이 과제수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혜영(1995). 완벽주의 성향, 자기효능감, 우울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nnette, S. (1990). 청소년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임영식, 양돈규 공역). 서울: 학지사(원서 1988 출판).
- Brown, S. R. (1993). Perfectionistic thinking and self-efficacy as predictors of college students' psychosocial development. University of Georgia.
- Burns, D. D.(1980). The Perfectionist's Script for Self-defeat. *Psychology Today*, Nov. 34-52.

- Davis, H. B., & Connell, J. P. (1985). The effect of aptitude and achievement status on the self-defeat. *Psychology Today*, Nov.
- Hewitt, P. L., & Fleet, G. L.(1991). The Multidimensional of Perfectionism Scale: Reliability, Validity and Psychometric Properties in Psychiatric samples. *Psychological assessmen A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 464-468.
- Lazarus, R. S. & Folkman,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linger Publishing Co.
- Lemper, J. D., & Clark-Lemper, D.(1990). Family Economic Stress, Maternal and Paternal Support and adolescent Distress. *Journal of adolescence*, 13, 217-229.
- Lynn, E., bieling, P. & Wallace, S. (1994). Perfectionism in and interpersonal context: A self-regulation analysis of dysphoria and social anxiet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8.
- Selye, H.(1984). *The Stress of Life*. New York: Mc. Graw-Hill, Inc.

## ABSTRACT

### **A study on the Perfectionism and stress of the Scientifically Gifted Middle school students**

**Song, Kyung Ae  
Lee, Jeehyu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differences in perfectionism and stresses between the scientifically gifted middle school students and general students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fectionism types and stresses in these two groups. One hundred and forty three scientifically gifted middle school students and 148 students from K middle school in Seoul we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as subjects. In case of the gifted group, overall perfectionism and self-oriented perfectionism were higher than the comparative group. However, the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of the comparative group was higher than the gifted group. The gifted groups felt less stresses than the comparative group. There were correlations between the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school life stresses in the gifted students.